

문화포럼

정읍시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구축

국비 1억5000만원 등 2억3100만원 확보, 노선 운행정보 등 담아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펼쳐

김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김영자)가 22일 3일차 감사일정을 마친 가운데 잘못된 점은 따끔한 질책과 함께 잘된 점에 대해서는 칭찬과 격려를 통해 생산적인 정책 감사가 되고 있다는 평을 받고 있다.

김복남 의원은 지적 제조사사업이 시민에게 매우 유익한 사업으로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적 전문직 증원 필요성을 지적하였다.

김영자 의원은(건설거구)은 인구는 줄고 있는 반면 이통성과 반장 수는 오히려 증가 하고 있는데 이를 통합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김윤진 의원은 주민과 만남의 날 행사 건의사항이 해를 넘기면 추진사항 점검이 중단되는데 처리가능한 건의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필요성을 지적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 추진을 주문하였다.

백창민 의원은 목거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추진절차에 대해 물고 부실공사에 대한 방지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선정시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선정할 것을 요구하였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중국어학원, 미소책방 개관

부안군은 군민들에게 책을 통해 중국 문화를 접할 기회를 제공코자 부안중국어학원에 미소책방을 개관했다.

미소책방에는 중국역사, 문화, 중국어 행지 소개, 중국어학습서적, 중국그림책, 중국드라마 DVD, 중국 원서 만화 등 중국 관련 서적 800여 권을 비치하고 있다. 부안군민이면 누구나 책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고 개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용할 수 있다.

부안군 한동원 새만금 국제협력과장은 "이번에 개관한 미소책방을 통해 군민들이 중국에 대해 좀 더 이해하고 친숙하게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부안=이옥수 기자

김제시 새마을지회, 112만원

사랑장학재단에 장학금 기탁

김제사랑장학재단(이사장 이견식)은 22일 김제시 새마을지회(회장 김창수)가 2016년 녹색장터를 운영하여 얻은 수익금 112만원을 김제의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에 써 달라며 기탁했다고 밝혔다.

김제시 새마을지회는 매년 후손에게 물려줄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폐비닐, 폐농약병등을 수거하여 판매한 수익금으로 추수경절에 어려운 이웃에게 명절 음식을 만들어 전달하는 행사 추운 겨울에는 월명탕이 김장 담그기 행사등을 통해 이웃사랑에 앞장서고 있으며, 해마다 현웃등을 수거하여 판매하는 녹색장터 운영 수익금은 김제 미래를 위해 쓰여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김제사랑장학재단에 기탁하고 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 개최

김제시(시장 이견식)는 22일 시청 2층 상황실에서 생활보장위원회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법적기준에 적합하지 않으나 사실상 보호가 필요한 관내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권리 구제에 대해 심의 의결했으며 도움이 꼭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적극적 소명기회와 더불어 현장 확인조사를 병행 실시해 총 17가구 25명에 대해 계속 보장 결정을 하기로 결정했다.

김제시 생활보장위원회는 부양의무자 및 실질적인 가족관계 해체세대 및 소회환신에서 제외하는 재산에 관한 사항 등 개별 가구 특성에 따라 기초생활보장이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 생활실태와 가구 특성 등을 파악, 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지속적으로 보호하고 있다.

남궁행원 주민복지과장은 "앞으로도 생활보장심의위원회를 적극 활용해 사회 서비스 연계 지원으로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정읍시가 국토교통부의 2017년도 광역버스정보시스템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과 도비 8,100만원 모두 2억3,100만원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 2억6,900만원을 더한 총사업비 5억원을 들여 시스템 구축에 나설 계획이다. 광역버스정보시스템(BIS)은 버스 노선의 운행 정보와 도착과 출발 안내 등의 정보를 담아 버스 이용자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받을 물론 이용에 도움을 주는 시스템이다. 특히 SNS를 통한 스마트 검색 등이 가능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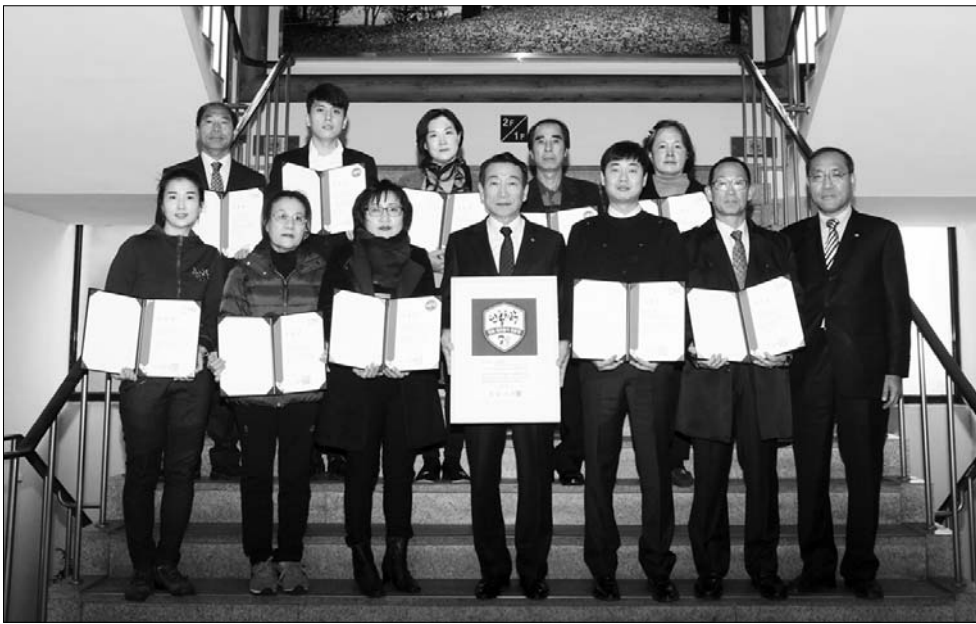
시는 또 시민들의 시내버스 이용 편의성 증진 및 자동 승객 계수 장치를 도입, 버스제정 지원의 투명성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시는 시내 주요 버스 승강장 30여 개소에 대한 도착 안내 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시내버스 53대에

통합 단말기를 설치하고 2017년 상반기에 기본설계를 시작하여 하반기 마무리 시범운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김생기 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시민들에게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요자 중심의 교통체계를 구축해서 최적의 교통서비스를 제공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공모사업에는 전국 10개 권역 16개 지자체가 참여해 치열한 경쟁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정읍시가 22일 대표음식 전문점 3개소·정읍맛집 7개소에 대한 지정증 수여식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전문기관 용역과 시민,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된 대표 음식은 '생화차 삼합'과 '사과매떡', 그리고 '귀리떡갈비'이다. 또 이들 음식의 대표음식 전문점은 '귀리떡갈비와 생화차삼합은 '서래원'과 '옥돌 생고기', 그리고 '귀리떡갈비와 사과매떡은 '쌈촌'이다.

정읍 고유 감성 담은 맛집 개발 '본격'

지정증 수여식과 현판식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대표음식과 지역 고유의 감성과 향수를 담은 정읍 맛집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정읍시가 22일 대표음식 전문점 3개소·정읍맛집 7개소에 대한 지정증 수여식과 함께 현판식을 가졌다.

시에 따르면 전문가 용역과 시민 그리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선정된 대표 음식은 '생화차 삼합'과 '사과매떡', 그리고 '귀리떡갈비'이다.

또 이들 음식의 대표음식 전문점은 '귀리떡갈비와 생화차삼합은 '서래원'

과 '옥돌 생고기', 그리고 '귀리떡갈비와 사과매떡은 '쌈촌'이다.

가격은 1인분 기준 1만2,000원에서 1만5,000원선이다.

이날 지정식은 시장실에서 있었으며, 현판식은 (사)한국외식업중앙회 전북지회 주관정읍시지부장을 비롯한 위생업소 지원심의위원회 위원, 대표음식 전문점업주, 김수인 전주대학교 한식조리학과 교수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쌈촌에서 있었다.

지정식에서 김생기 시장은 "개발된 대표음식을 기술이전 받아 대표음식 전문점으로 탄생한 3개 업소와 정읍시민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정읍맛집으로 선정된 7개 업소 관계자 모든 분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차별화된 서비스 제공과 뛰어난 맛을 갖춘 요리를 통해 우리 정읍의 음식문화관광산업을 이끌어 가는 선도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정읍맛집 7개소는 '금계북'과 '갈비반스', '백화정', '명성쌈밥', '일력', '국화회관', '씨앗전복'이다.

한편 시는 대표음식이 정착 될 수 있도록 대표음식·정읍특산물·대표음식 전문점·정읍맛집을 담은 홈페이지를 구축하는 한편 책자 제작과 전광판 등을 이용한 전략적인 홍보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김제시보건소, 시민 대상 심뇌혈관질환 인식개선교육

"골든시티, 골든벨을 울려라" 왕중왕전 개최

김제시 보건소(소장 박래민)는 22일 단일질환으로서 사망률1위이며 심각한 후유장애를 발생시키는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해 연초부터 추진해 온 "골든 시티, 골든벨을 울려라" 왕중왕 선별대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3번째인 "골든 시티, 골든벨을 울려라"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전담하는 강의 형식의 교육에서 주민 참여형으로 전환하여 추진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바른 정보 제공을 통하여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등 선형질환의 관리 및 합병증 예방과 응급상황 대처 능력의 향상으로 후유 장애 발생 예방과 건강수명 연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19개 읍면동에서 지역예선을 거쳐 선발된 65세 이상 어르신 60여명 문제에 집중하며 레크레이션 강사의 진행에 맞춰 웃음과 긴장 속에 40여 문항의 문제를 풀어가며 그간 보건소, 보건지소, 진료소 사업 담당자들에게 받았던 교육 내용을 다시 한번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을 함께 가졌다.

다.

"골든벨을 울려라 왕중왕"으로 최우수상 1인과 우수상 2인, 장려상8인을 선발하여 수상자들이 이웃과 주민들에게도 심뇌혈관질환에 대한 기초 상식들을 널리 홍보 할 수 있는 기초 상식을 교육시켜 시민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김제시 보건소 관계자는 김제시민 모두가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관리를 위해 바른 지식을 알고 일상 생활에서 실천하여 스스로 관리, 대처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건강지킴이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 금산면, 체납지방세 징수 총력

마을별 체납액 징수책임제 운영

김제시 금산면(면장 김민원)은 11월을 지방세 체납액 특별징수기간으로 정하고 마을별 체납액 징수책임제를 운영하는 등 체납세금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별 징수기간 동안 마을 담당공무원과 마을이장의 협업으로 징수책임제를 운영하여 체납자의 연고과파 등 에 주력하고 있으며 체납인내문을 발송하고 마을방송을 통한 홍보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고지서를 받지 못한 체납자들의 거소지 지정 신청 등을

둘러하고,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에 의하여 재산 압류 처분 및 변호관 영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하고 있다.

김민원 금산면장은 "현재 체납액의 20% 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성실한 납세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김제시의 자주재원 마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길곳봉수대의 발굴현장을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과 이승복 부시장이 함께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길곳봉수대 살리기 팔견어

김제시의회 의장과 김제시부시장 발굴현장 합동점검

새만금 일대의 최종상에 위치하여 전북 서해안일대에서 유일하게 정식 조사가 이루어진 길곳봉수대의 발굴현장을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과 이승복 부시장이 함께 방문하여 추진상황과 향후계획을 점검하는 등 새만금 문화관광자원 확보에 직접 팔을 걷어 부추는 복원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김제시 진봉면 심포리에 위치한 길곳봉수대는 세종실록 지리지에 기록된 부안 개화도 봉수-김제 길곳봉수-군산 사자암 봉수로 이어지는 봉수대로 김제시에서 국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군산대학교 박물관(관장 박장근)에서 긴급발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영시설로 보이는 건물지의 적십자 기초부도 보이는 시설이 일부 확인되었고 그 주변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량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진포해전, 백강구전투, 기벌포전투 등 서해안 일대에 일어났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의 위치비정에 역사학계가 주목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과 이승복 부시장은 발굴조사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한 뒤 향후 복원방향 및 봉수대의 활용방안을 논의하며 "새만금시대를 열어가는 알차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동력은 역사와 문화자원을 지키는 것이 사명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하였다.

발굴조사가 이루어지기전에는 봉수의 상단부에 헬기장과 국가 측량 기 준점이 시설되면서 훼손이 이루어지는 등 멸실위기에 처해 있었으나 발굴조사가 이루어지며 봉수대의 방어와 화제를 예방하기 위한 호(壕)의 설치, 봉수대 남쪽의 평탄지에는 병

영시설로 보이는 건물지의 적십자 기초부도 보이는 시설이 일부 확인되었고 그 주변에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다량의 유물들이 출토되어 그간 논란이 되었던 진포해전, 백강구전투, 기벌포전투 등 서해안 일대에 일어났던 굵직한 역사적 사건들의 위치비정에 역사학계가 주목하게 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나병문 김제시의회 의장과 이승복 부시장은 발굴조사 관계자의 설명을 청취한 뒤 향후 복원방향 및 봉수대의 활용방안을 논의하며 "새만금시대를 열어가는 알차고 풍요롭게 만들어갈 동력은 역사와 문화자원을 지키는 것이 사명감이 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함께하였다.

나병문 의장은 "새만금은 김제시민의 자부심이 되어야 하며, 길곳봉수대가 과거로부터 우리지역을 지켜온 것처럼 우리도 이를 지켜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김제=곽노태 기자



부안을 교회는 윤상원 부안을 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한 다문화가정 자녀와 가족, 성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가정 학생 47명을 초청했다

부안음교회 다문화가정 초청예배

500여명 참석... 장학금 940만원 전달

100년! 선교로 세워진 교회의 사명을 다하며 소외된 이웃을 섬겨 온 부안음 교회(담임목사 윤상원)가 "창립 100주년"을 맞아 관내 다문화가정을 초청해 장학금과 저녁식사를 함께 하는 자리를 만들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었다.

부안음 교회는 지난 20일 오후 4시 주일오후예배 때 100주년 기념 다문화가정 초청예배에는 윤상원 부안음 교회 담임목사를 비롯한 다문화가정 자녀와 가족, 성도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다문화 가정 학생 47명을 초청, 장학금 940만 원(1인 20만 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소중한 인재를 성장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안음 교회는 이 행사를 일회성 행사로 마치지 않고 교회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철학 아래에서 다문화 센터를 포함한 지역 복지 사회에 귀감이 되었다.

로 더 다양하게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책임을 감당하고자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부안음 교회는 100주년 기념행사 관련 지난 8월27일 100주년 홈커밍데이를 통해 전 교인이 참석하는 기념예배와 이 교회 출신 목회자와 성도 150여 명을 초청해 역사사진전시회 및 기념행사 등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윤상원 담임목사는 "부안음 교회는 1916년 3월 10일 부의림 이라는 미국 선교사가 강태홍씨 가정에서 최초로 예배드림으로 시작하여 올해 100주년을 맞이했다"며 "그동안 많은 변화와 성장을 통해 부안음 교회가 지역을 섬겨왔다"고 말했다.

윤 목사는 특히, 오늘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꿈과 희망을 잃지 말고 학업에 더욱 정진하여 장래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당당하고

한편 부안음 교회는 부안 읍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세례교인 포함 총 성도 수가 600여 명에 이르고 있고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교회의 특성을 살려 각종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울 해를 섬겨왔다"고 말했다.

100주년을 맞아 해외 귀송 선교 사업 및 선교사들에 대한 협력지원활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는 내실 있는 교회이다. /부안=이옥수 기자